

수학자 이야기

수학자들의 연결 공간 세종수리과학연구소

김소연 | 『대한수학회소식』 학생기자, 건국대학교 수학과 1학년 |

“추상화된 수학 이론 속에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고, 시가 있고, 소설이 있어요.” 지난 7월 22일 세종수리과학연구소 (Sejong Institute for Mathematical Sciences, SIMS)¹에서 이건희 교수님과 인터뷰 도중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교수님은 평소 수학의 아름다움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수학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연구 공간을 꿈꾸셨다. 그래서 지난 8월 충남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시며 세종수리과학연구소를 개소하셨다. 현재 세종수리과학연구소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연방 대학교(Univ. Federal do Rio de Janeiro)에서 온 연구 교수 1명, 박사후연구원 1명, 방문연구자 2명이 함께 연구하고 있다.

교수님은 연구자가 각자의 책상에 앉아 본인만의 연구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폭넓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자와 소통하고 수학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는 등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는 대수기하학을 완전히 다른 분야인 조합론 문

제에 사용하였어요. 하나의 분야에만 치중하였다면 생각해 낼 수 없는 아이디어죠.” 즉, 학문 간의 융합,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젊은 수학자들은 이해력이 빠르고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폭넓게 알기는 쉽지 않아요. 시니어 학자들은 젊은 학자들에 비해 대체로 이해력도 느리고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도 뒤쳐요. 하지만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연구자와 연구그룹을 연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희 교수님은 지난 38년간 수학계에 몸담으면서 시니어와 젊은 수학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며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연구 공간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셨다. 그래서 기존의 국책 연구소나 대학 연구소보다 더 자유롭게 시니어 수학자와 젊은 수학자가 공동연구를 하고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도 초청하여 함께할 수 있는 사실 연구소를 개소하셨다.

실제로 이건희 교수님이 소통에 열려 있으시다는 것을 이번 방문에서 느꼈다. 연구소에서 수학자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며 농담을 하거나 수학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세미나룸에서 각자 돌아가며 연구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데, 마침 기자가 연구소를 방문한 날

1 세종수리과학연구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6, A40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s://sims.re.kr> 이다.



세미나를 진행하는 모습

이 금요일이라 수학자들이 소통하는 현장에 함께할 수 있었다. 질문이 활발히 오가고 이진희 교수님이 다른 수학자들과 소통하시며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에 국내에서 연구하며 연구 방향을 헤매고 있다가 르네 톰(René Thom) 교수에게 우편으로 연구 방향을 문의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메일이 없고 우체국 우편으로 편지하던 시절이라 편지가 오가는 데 한 달씩 기간이 걸리던 시절이었죠. 르네 톰이라는 이름이 논문에 자주 나오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편지를 썼는데 약 한 달 후엔가 답장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필즈 메달을 받은 유명한 교수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필즈 메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냈어요. 편지 내용도 엉망이었을 텐데 무모하게 보낸 시골 청년의 편지에 아주 친절하게 답장을 해준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따뜻한 인성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돌아보고 학자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런 경험 때문인지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도왔다고 하셨다. 이는 교수님을 만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Math Lounge에서 수학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모습

앞으로 교수님은 오랜 시간 연구해 왔던 동역학계(dynamical system)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책을 낼 생각이시다. 그리고 베트남수학연구소를 10월 중순부터 3개월간 방문하여 강연과 연구를 할 예정이시다. 내년에는 제자들이 있는 베트남, 중국 및 몽골 등의 몇몇 대학을 1~2개월씩 방문하여 강의하시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셔서 국내 대학에 소개하고 연결하는 일을 할 예정이시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이 퇴직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셨다.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에는 수학이 있어요. 선진국들 대부분은 수학 경쟁력을 키우고자 많은 투자를 해요. 우리도 정부가 수학에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인터뷰를 하며 수학자들이 연구소에서 보내는 일상을 가까이서 보고, 이진희 교수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수학을 일이라기보다 마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 같은 모습에 경외심마저 들었다. 나도 그 일원이 되고 싶어졌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배웠다. 